

보도일시 (인터넷) 2023. 8. 17.(목) 11:00,
(지면) 2023. 8. 18.(금) 조간

배포 2023. 8. 17.(목) 06:00

선박 내 전기차 화재에 선제 대응 위한 훈련 실시

- 오는 18일부터 인천항 등 카페리여객선 주요기항지에서 민·관 합동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18일(금)부터 인천항 등 전국 연안카페리 여객선 기항지 7곳*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

* 인천항, 대산항, 군산항, 마산항, 여수항, 포항항, 제주항

이번 훈련은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선박을 이용한 전기차 운송도 증가함에 따라, 선박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해양수산부는 훈련에서 △신속한 사고 발생사실 전파, △여객 및 선원 대피, △전기차 화재 대응 특수장비(질식소화포, 하부주수관창 등)를 이용한 화재 진압 등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 현장에서 전기차 화재 특성 등에 대한 전문가 교육도 실시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훈련을 통해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체계 및 보완할 점을 꼼꼼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더욱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기차 화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차의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 「카페리선박 전기차량 운송 시 화재 예방 및 대응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기관과 여객선사에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8월 1일부터는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과 함께 ‘선박 운송 전기차 화재 대응 개선 협의체(TF)’를 구성해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을 검토·마련하고 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민중 (044-200-5850)
	해사안전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서상대 (044-200-5817)

참고

훈련 일정 및 관련 사진

□ 훈련 일정

훈련지역	훈련일자	훈련지역	훈련일자
인천항	8.18(금)	마산항	9.25(월)
대산항	8.21(월)	여수항	9.26(화)
군산항	9.11(월)	포항항, 제주항	10월 초

□ 관련 사진



전기차 화재대응 현장훈련(목포항, 7. 11. 시행)